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왕중왕전 출전... 우승 도전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

女단식 세계 1위 안세영 포함

각 종목 대표주자들 출전

배드민턴 대표팀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삼성생명)을 비롯해 각 종목 대표주자들이 우승에 도전한다.

배드민턴 왕중왕전 격인 HSBC 세계 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3이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다.

총상금은 250만 달러로 우리 돈 32억 25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배드민턴 국제 대회 5개 종목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8명(팀)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한 나라에서 2명(팀)까지만 출전 가능하다.

대진은 다음달 11일 발표된다. 8명(팀)이 2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치른 뒤 상위 2명(팀)이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왕중왕을 가린다.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은 2021년 이후 2번째 우승을 노린다. 2021년 당시 대



배드민턴 월드 투어 파이널스

〈사진=세계배드민턴연맹 누리집 갈무리〉

진 문에 힘입어 생애 첫 파이널스 우승을 차지했던 그는 이번에는 세계 1위 자격으로 대회에 나선다.

부상 후유증은 걱정거리다. 합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힘줄 파열 부상을 입은 뒤 회복했지만 복귀 후 출전한 2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에 실패했다. 왕중왕전 전까지 예전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안세영 외에 김가은(삼성생명)도 여자 단식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 2위 아미구치 아카네(일본)가 불

참할 경우 김가은이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

여자 복식은 이소희(인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와 김소영(인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이 출전한다. 김소영·공희용도 안세영처럼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남자 복식은 서승재(삼성생명)·강민혁(삼성생명)이 출전한다.

혼합 복식은 서승재·채유정(인천공항)과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이 나선다. 남자 단식에서는 출전권을 내지 못했다. /뉴시스

올 골든글러브 후보 80명 최종 확정

프로야구 LG 트윈스, 12명 배출... 내달 11일 시상식

KBO(총재 허규연)가 29일 '2023 신한은행 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총 81명이며, KBO리그에서 포지션 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만이 최종 우승의 영예를 누릴 수 있다.

골든글러브 후보 선정 기준은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 x 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 나서야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단 타이틀홀더(부문별 1위)에 한해 여러 포지션 출전으로 어느 포지션에서도 수비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수비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수비이닝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는 각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투수 부문 720이닝(팀 경기 수 x 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 나서야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한 구단은 없으며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LG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선수가 후보에 올랐다.

한편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1일 오후 3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인단은 올 시즌 KBO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들과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야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개별 발송되는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한 뒤 온라인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오는 12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되며, 지상파 KBS 2TV 및 유튜브 플랫폼 네이버, Daum(카카오톡), TVING, Wavve, 스포키에서 생중계 된다. /뉴시스

피겨스케이팅 국대 1차 선발전 오늘 개막

시니어 부문 차준환·이해인·김예림 등 총출동

주니어 부문에는 김현경·임주현·신지아 등 나서

2024~2025시즌 태극마크를 달 한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 선발전이 30일 개막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3 KB금융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내년 1월 29일부터 2월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4

ISU 사대륙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파견 선수를 뽑는다.

또 2024~2025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한다.

새 시즌 피겨 국가대표는 이번 대회 성적과 내년 1월 개최되는 제78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의 성적을 합산해 결정된다.

시니어 부문의 경우, 피겨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을 비롯해 여자

싱글의 이해인(세화여고), 김예림(단국대) 등이 총출동한다.

오른쪽 발목 통증으로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 기권했던 차준환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해인은 지난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최종 4위에 올라 아쉽게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지 못했다.

또 주니어 부문에는 2023~2024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오른 남자 싱글의 김현경(한광고), 임주현(수리고)과 여자 싱글의 신지아(영동중), 김유성(평촌중), 권민솔(목동중)이 나선다.

이번 대회는 빙상경기연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뉴시스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 앞 인도에 김강민의 한화 이글스로의 이적을 막지 못한 SSG 랜더스 구단에 항의의 표시로 팬들이 가져다 놓은 조화들이 놓여 있다. 김강민은 23년 동안 전신 SK 와이번스와 SSG 랜더스에서 선수생활을 했으나, 4년 만에 재개된 KBO 2차 드래프트에서 보호 선수 35인 명단에서 제외돼 한화 이글스에 4라운드 지명을 받고 이적했다.

김강민 한화 이적... SSG 팬들 빨났다

랜더스필드 야구장 앞 인도에 근조화환 보내

김성용 전 SSG 단장 최근 자진 사퇴 의사 밝혀

SSG 랜더스 야구팬들이 29일 최근 김강민의 한화 이글스 이적을 막지 못한 SSG 구단에 항의하며 인천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 앞 인도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2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 앞에 세워진 근조화환에는 "우리의 영원한 0번은 어디에" "인천남단야구는 오늘로 죽었다" "팬들을 기만하지마라" "인천야구 망치는 결정권자들 팬들을 바보로 아는가?" 등의 항의 문구가 담겼다.

김강민 포토포는 SSG 구단 이름을 가리고 전 구단 이름인 SK와이번스를 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김강민은 2001년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입단해 23년째 한 팀에서만 뛰었다. 5번의 한국시리즈 우승(2007년·2008년·2010년·2018년·2022년)을 함께 했고 SSG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한 지난해에는 한국시리즈 최우수 선수(MVP)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김강민은 SSG 구단과 은퇴를 고민하며 현역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 드래프트에서 보호 선수 35명 명단을 유망주 위주로 구성하면서 김강민을 제외했다. 은퇴를 고민하던 김강민이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팀에 지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한화 이글스가 지난 22일 2024 KBO 2차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2순위로 김강민을 호명했다.

23년간 인천에서 뛰어난 김강민은 이제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강민의 이적 사태에 김성용 전 SSG 랜더스 단장은 최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프로야구 KIA, 광주 동구

영아일시보호소에 성금 전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펼쳤다.

KIA 구단은 29일 광주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사랑의 기금'을 전달했다.

영아일시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기금을 전달한 KIA 투수 전상현은 "선수단이 조금씩 모은 기금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분이 남다르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꼭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IA는 "이날 전달된 기금은 2023시즌 동안 KIA 최지민, 윤영철, 최형우, 전상현, 나성범, 김선빈 등이 수상한 밝은안과21병원 월간 최우수선수(MVP) 상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2023. 12월 7일
목
7:3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콘서트
Children's Human Rights Concert

소풍

티켓 | 전석 1만원

예약 | 아동·청소년을위한 인권 콘서트 '소풍' 검색

문의 | "익자야채날" 문화공간이룸 ☎ 063-223-5323

후원 | 전라북도 문화재단 전주매일신문

주최·주관 | 시민문화 THE 문화